

사 설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난 1일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 민족 최대의 걸작품이자 인류 문화의 빛나는 업적이 비로소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유네스코의 결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민족문화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떠한 문화정신으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준다.

올해는 세종대왕 탄신 600돌이 되는 해이며 551돌의 한글날을 맞이한다. 91년 노태우 정권은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국가의 경축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곧 국가 경축일로서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전부터 한글날의 경축행사는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 해당 유관기관과 뜻있는 사람들만의 작은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잔치를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동네잔치로 전락시켜버린 꼴이 되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동방의 빛나는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문화적 안목에 대하여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만들었다고 해서 경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다고 감탄을 한다. 세계의 저명한 미국의 한 언어학자는 한글날이면 스스로 경축일로 삼고 세종대왕에게 경배드리며 학생들과 더불어 세종대왕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세계에 알려진 교수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인류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말과 글을 업수이 여기고 있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구호를 되뇌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문화정책 입안자들이 있는 이상 민족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부활 제정하여 세계만방에 우리 한민족이 진정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알리자.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지는 의미는 세계에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이며, 참다운 경축일로서 의미를 되새기자는 데 있다. 너무 많은 공휴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앞뒤로 노는 추석절을 하루 줄이더라도 한글날을 반드시 공휴일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한 문화 정책 입안자들의 숙고를 바라며 아울러 차기 정부가 갖추어야 할 문화정책의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론

의료보험조합, 하나로 통합해야

말로 주고 되로 받는 보험혜택

권 경 기

(의보연대회의 홍보부장)

통합일원화는 의료보험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전국민

의 소득에 따른 형평성있는 보험료 납부도 가능케 한다

지난 한해 우리 국민은 총 2억 5천만번 이상 병원 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6회 꼴로 병원을 찾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도 5조원을 넘어섰다. 이제 의료보험은 우리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 큼이나 의료보험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보험증의 이용빈도 만큼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우선 가장 큰 불만으로 보험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보험증을 내밀어도 보험혜택 보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의료비는 GNP의 약 5% 수준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총생산액이 386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20조원이 의료비로 지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보험급여비 5조원정도이므로 전체의료비중 25%만이 보험재정으로 충당되고 75%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

니 의료보험증은 의료비 할인증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와 조합의 이야기처럼 보험료부담이 낮아서인가? 그러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각 조합에 쌓여있는 의료보험 적립금이 4조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답은 달라져야 한다.

조합간 빈부격차 심각

문제는 제도자체에 있다. 현행 조합방식의의료보험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가 각각 독자적인 조합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성요인에 의해 조합의 재정력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조합간 재정 격차이다. 이는 단지 부자조합과 빈자조합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떠나 의료보험제도 운영에 커다란 문제

점을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여수준의 범위를 정할 때 무엇보다도 각 조합의 재정상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합의 재정상태는 가장 빈자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어느 조합도 재정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열악한 조합을 기준으로 급여폭을 정하다 보니 자연히 급여가 하향평준화된다. 그만큼 병원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빈자조합의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보험재정을 인상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발생한 재정적자문제를 보험료인상으로 해결하다보니 오히려 잘사는 계층보다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조합관리운영비(주로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의료보험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리운영비는 6334억원에 달한다. 전체 보험재정대비 9.88%수준이다. 선

전국의 사회보험운영비가 3%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관리운영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수백 개에 달하는 조합의 분리운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재정공동부담사업

정부도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투입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재정공동부담사업이다.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과 노인의료비공동부담사업으로 구분되는 재정공동부담사업은 일정금액이상의 진료비와 고령자의 진료비에 대해 각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직장조합의 보험 적립금을 지역조합으로 넘기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해 총보험재정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를 공동부담사업의 기금으로 확보하였지만, 적자조합이 축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대폭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나타난 일

부 직장조합의 적자현상은 공동부담사업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또 하나의 대안인 국고차등지원 역시 지금까지 공돈배분방식에서 조합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역시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도시보다 농어촌조합으로 더 많은 국고를 배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난해 농어촌조합보다 도시조합의 적자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마땅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

급여혜택 공평해야

결국 현행조합방식 구조하에서는 재정격차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곤혹스러운 것은 이 재정격차의 벽을 넘지 않고는 의료보장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정격차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보험통합일원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일원화는 의료보험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은 단일한 보험조직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적정수준의 부담과 급여를 가능케 하여 보다 나은 급여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관리운영비 절감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상부상조하여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한 만큼 보건 의료서비스를 분배받는-제도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PC 통신원

이승만 흉상을 국회로(?)

최근 이승만 바로세우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등에서 진행 중인 '이승만 바로세우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김수환 국회의장이 내년 5월 국회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다를 입구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는 의견을 건의 중이다.

이에 역사학계에선 이런 논의는 역사인식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며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PC통신에서도 이승만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흉상 건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이기는 하나 오점을 남겼다는 의견이 있다. (ID:locodoco)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무장투쟁을 통해 해방 이후의 민족발원권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그는 외교적 독립을 주장하며 자주독립이 아닌 친미적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영구독재를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치고, 반발세력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넣었던 점,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친일세력들이 판을 치는 점들이 단지 초대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묵인될 수는 없다는 의견과(ID:SAKGAE) 등) 6.25전쟁 당시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 아직까지도 자주국방을 불가능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ID:GLOTTIS)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에서 보수층의 표를 얻고자 흉상을 세운다는 식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면 이는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주장일 것이다. 정말 흉상을 만들 만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냥 빈자리로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그 자리의 주인을 찾는 바른 길 아닐까 한다. (최용섭 기자)

세·시·봉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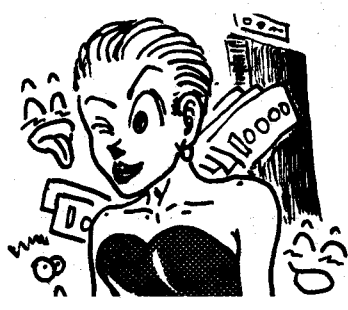
"빛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누구나 가보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사창가를 소재로 삼아 만든 영화 창에서 주인공 영은이 마지막 장면에서 읊조리는 대사다.

창너른 혹은 사창가는 매춘의 역사라는 책에서 증명하듯이 인류사와 함께 해 왔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회적으로 향락적인 분위기와 더해 질 때 사창가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그 사창가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전국의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첫 시범지역은 영동포구 신길동 텍사스촌. 성업중인 마흔 아홉 개의 업소를 폐쇄하고 이를 위해 단전 단수조치까지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창가 폐지에 착수했다. 대부분의 가솔 여고생들이 사창가로 흘러들어 사창가가 여고생들의 가솔을 부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에 대한 폐쇄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엇이든 계속 팔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판전은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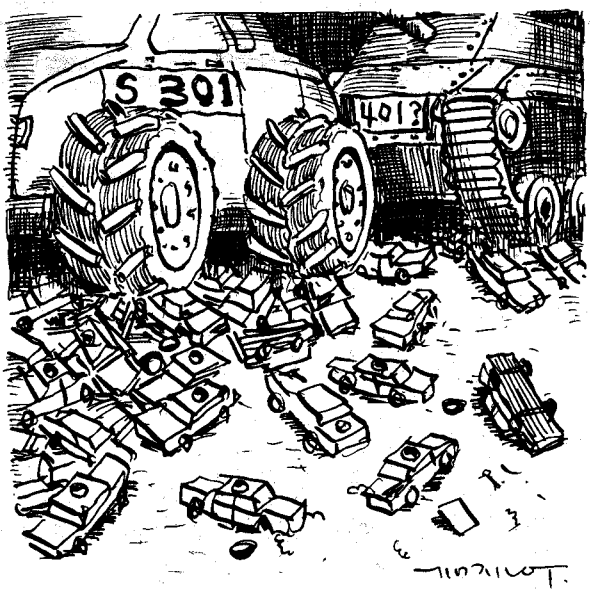


최수정 편집장

을 파느냐인데 그중 몸을 파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천한 일에 속했다. 그래서 매춘은 정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일이었다. 매춘은 생명 창조의 근원으로 신성시 되었던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 시킨다는 이유로 비판 받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춘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일말의 동정이 섞여 있었던 이유는 산업화 초기 단지 여성으로서도 도저히 생계를 부양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끔씩은 미군기지 근처에서 혹은 밀집된 번두리 사창가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매춘여성들은 영화나 소설속에서 동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창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 매춘은 가솔한 여고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할 수도 있고 주부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렸다. 달리 말하면 돈만되면 딸같은 어린애와 섹스를 해도되고 돈만주면 자기아내같은 남의 부인과 하룻밤 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성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반드시 아름다워야 함을 이 시대는 망각하고 있다.

경희만평

김진우



“언제까지 반복하려고 ...”

“氣찬 사람을 찾습니다.”

氣가 펄펄 살아나는 한국중공업 -

연간 30억 달러 어치의 발전소와 공장을 수출하고있는 한국중공업 - 96년 100대 우수기업 선정, 정경상상 수상, 국가품질대상수상 등 일련의 성적을 거둬오고 있으며, 이제 2001년 5배의 매출신장으로 세계 5위권 진입이라는 원대한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氣찬 사람”

氣가 살아있어 활력이 넘치는 인재 - 氣가 넘쳐 신바람이 나는 젊은이 - 발전설비, 산업플랜트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한중에서 당신의 氣를 확 펼쳐십시오.

직원들의 氣를 살려주는 한국중공업 -

10위권안에 드는 대졸 초임과 후생복지가 앞서가는 회사, 종업원 지주가 예고되고 있는 신바람 나는 회사, 갖가지 교육기회와 세계무대를 향해 자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회사, 한국중공업에 도전하십시오.

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문, 인원 및 응시자격

■ 신입사원

모집부	인원	응시자격
이공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금속, 조선, 환경	4년제 정규대학 해당(관련)학과 '98.2월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인 자 또는 기졸업한 자
인문계	상경, 법정	1970.1.1 이후 출생자(단, 석사는 1968.1.1 이후 출생자)

■ 연구요원

모집부	인원	응시자격
발전분야	박사, 석사	연소공학, 대기오염, 연소공학, 열유체, 고전압
기반기술	박사, 석사	구조해석, 자동제어, 전자기학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연구요원은 해당없음
다. 3차 : 면접 및 신체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2부
나.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다. 외국어 인증서(TOEIC, TOEFL, JPT, 기타) 소지자에 한함
라. 자기소개서(연구실의 중점 및 연구논문 요약본(3~5매)) 연구요원에 한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7.10.13(월) ~ 1997.10.22(수) [접합 : 09:00 ~ 17:00, 토요일 09:00 ~ 12:00]
나.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지역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중공업(주) 서울사무소 2기 2층	(02)513-6033 ~ 6
충원	641-732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한국중공업(주) 인사부	(055)178-7233 ~ 5
부산	600-014 부산 중구 중앙동 471 25 동명빌딩 12층 한국중공업(주) 부산사무소	(051)469-5610, 464-1512

5.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정보 통보 및 ARS 서비스 발표

6. 필기시험

가. 과목 : 영어(TOEIC), 직무능력검사 인문/이공공학
나. 일시 : 1997년 11월 30일(일) 09:00 ~ 13:00
다. 장소 : (1)창원지역 : 창원대학교(경남 창원시 사림동 소재)
(2)서울지역 : 단국대학교 부속중학교(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7. 우대사항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
나. 전공관련 기술자격을 소지자 우대.

8. 기타

가. 우대접수는 마감일내에 도착까지 유효함.
나. 연구요원은 전공을 지원서 우측상단에 명시할 것(연구요원은 인턴제 접수 불가)
다. 신입사원은 필기시험 희망지역을 입사지원서 응시지역란에 명시할 것.

한중사내 안내
▲인턴제 원사접수 : hunjung homepage(http://www.hunjung.co.kr)의 채용정보
▲ARS 서비스 : ☎0551-78-8898(11월 1일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